

#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



윤우중의  
잠시 심포

블록 체인이란 생소한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몇년 전부터 외신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세탁도 하고 커피도 사마신다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한 세상이네' 정도로 가볍게 넘겼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또 다른 한쪽에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 디지털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해야 할지, 암호화폐라고 해야 할지 개념 정의조차 돼 있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가상증표라는 표현도 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을 위축시켰다. 규제를 하겠다면서 그 대상이 뭔지도 모른다면 제대로 된 규제가 가능할까.

정부는 '실기'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2016년 11월 관계부처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권이 교체되

는 시기가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 넘도록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난 것이니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을 '보수 vs 진보'의 대립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논리를 들어보니, 보수 매체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정권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는 얘긴데, 견강부회(牽強附會)도 이젠 좀 심하지 않나 싶다.

사실,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가상화폐의 잘못이 아니다.

블록 체인과, 블록 체인에서 파생한 가상화폐는 당초 투자나 투기, 도박을 위해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시스템의 내부 자산(internal capital)이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상의 거래 매개체로 이용되기도 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저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투기의 대상이 됐고 도박판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자나 거래자들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 한국을 이용한 것이고, 이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경제 규모 등에 맞지 않게 비대해졌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목돈'이 없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때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광풍'이라고 할 정도의 투자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한 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투기판, 도박판에 다 날려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자금세탁처로 한국이 악용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환율조정 실패라는 위기가 초래될까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를 '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활인검이 될 수도, 살인검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기술 자체를 탓할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술 자체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발달한다.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대책을 내놓는 건 찬성한다. 하지만 거래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19세기적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첨단기술을 통제하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우분, 평창패럴림픽 기념우표 80만장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우표 10종 총 80만장을 개막 50일 앞둔 18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념우표는 패럴림픽대회의 엠블럼과 성화를 비롯해 대회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경기 모습을 담았다. /우분

## 성남 중합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전달식



넥슨지티·레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선행

주식회사 넥슨지티와 넥슨레드가 성남시 분당구 중합지역아동센터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넥슨지티 및 넥슨레드는 17일 양사의 임직원들이 피트니스와 미용실 등 사내 편의시설 이용금액을 모은 기부금 3000만원과 컴퓨터 15대를 성남시의 중합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넥슨지티

## 'IT 강국' 한국?



이지수첩  
정은미 (산업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스며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IT 굴기가 거세다는 것을 실감하는 자리기도 했다. 올해 CES에 참여한 중국 기업은 1379개로, 전체 참가기업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그간 중국은 베끼기나 기술 추격자로 치부했지만 올해는 질적 성장도 이뤄

내 주목을 받았다.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는 구글과 아마존의 AI 플랫폼을 탑재한 인공지능 TV 'H10E'를 선보였으며,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는 AI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알리바바는 AI 스피커인 'T몰 지니'를 공개했다.

로봇 분야는 더 눈에 띈다. CES 로봇관에 차려진 중국 기업의 부스는 20개로, 전체 참가 기업 36개의 반 이상이었다. 한국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중국의 위상은 CES의 메인 기조연설자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ES의 기조연설자는 IT 산업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급에서 선정된다.

올해 CES에서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주요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의 리처드 유 CEO가 기조연설자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우리가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냉정하게 우리 IT 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경쟁력을 가능해야 한다. 중국의 IT 굴기 원인으로 꼽히는 강력한 지원책은 들춰지고라도 제대로 된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다면 그간 쌓은 IT 강국으로서의 위상마저도 무너질까 봐 우려된다.

/21cindun@

### 인사

-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권순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수무국장 남판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석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조정목 △국세청 노정석 △국세청 정재수 △국세청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이기열 ◇과장급 전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권승욱 △사산세무서장 한인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나향미
- ◆산림청 ◇과장급 전보 △산림산업정책국장 임상섭
- ◆한국도로공사 ◇실처장급 △비서실장 황광철

- △좋은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진식 △기획조정실장 신동희 △혁신전략처장 김선일 △정보처장 김병희 △재무처장 정광철 △휴게시설처장 문기봉 △도로처장 진규동 △시설처장 김경일 △건설처장 정민 △설계처장 김일환 △품질환경처장 권혁 △사업개발처장 이세홍 △ITS처장 권오철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장 김대진 △초장대교량사업단장 광석환 △인재개발원장 강운 △통행료통합센터장 현병업 △밀양울산건설사업단장 조남훈 △수도권본부장 유시영 △강원본부장 엄창용 △대전충남본부장 박상환 △전북본부장 이호경 △광주전남본부장 이학구 △대구경북본부장 김진광 △부산경남본부장 김시환 △감사실장 김명호 △영양처장 박해용 △교통처장 유병철 △재난안전처장 김동수 △기술심사처장 이창봉 △도로교통연구원장 조주기 △국가ITS센터장 김태연 △홍보실장 김성진 △총무처장 배명열 △법무실장 김장환 △ICT센터장 박건태 △교통센터장 봉영채 △수원지사장 이두행 △동서울지사장 배상복 △원주지사장 박종진

- 윤승호 이관호 손태운 이종형 △상무보A 박상현 송보근 박재철 배광성 김수학 박수성 석낙신 Phillip Kong(LC Titan) △상무보B 최영현 김중환 문영태 김일규 강종원 임성수 김취찬 정종식 김용학 이영재 이영관 김기순 심형섭 Humair Ijaz(LCPL)
- ◆고려대 △관리처장 공정식 △연구처장 김병수

### 부음

- ▲여역자씨 별세, 신효섭(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씨 장모상 = 16일 오전 8시 55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43-269-6969
- ▲허만복씨 별세, 허철홍(한국투자신탁운용 부장)·석주(엠게임 차장)·영희·윤정씨 부친상, 관향회(늘푸른중학교 교사)·강진연씨 시부상 = 16일 오후 6시 30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4호, 발인 19일 오전 9시, 055-750-8448
- ▲박정희씨 별세, 장경호·경훈(KEB하나은행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부사장)·경숙(동대부여중 교사)·경희(프라임사랑 어린이집 원장)씨 모친상, 홍익주(전 삼천리 이사)·박광순(전 데이콤 부장)씨 빙모상, 김정수씨 시모상 = 17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02-3010-2295



한화생명, 찾아가는 라이프플러스 카페 운영

한화생명은 17일부터 찾아가는 라이프플러스 카페를 운영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찾아가는 라이프플러스 카페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카페로 전국 56개 지역단과 7개 직장 단체를 찾간다. 오는 3월 8일까지 본사 전 팀장 및 임직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도우미들이 따뜻한 음료를 직접 만들어 나눠준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영업총괄 구도교 전무(왼쪽에서 두 번째), 임직원들이 음료를 준비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신한금융투자, 따뜻한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

신한금융투자는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관악구 밤골지역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신한금융투자 올해 입사 예정인 신입사원을 비롯한 약 50여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후원받는 가구는 서울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내 관할 가정으로 총 3000장의 연탄을 배달받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창규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